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2:1-8(현대인의 성경)

1. 말씀

- 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 2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3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 6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 7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 8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요?(1, 2, 3, 6절)

→ _____

- 바울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며 우리의 일상,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바울이 권면하는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 이야기 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라고 도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은 3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라 이야기 합니다. 혹, 자신에 대해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은사(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자선 등)를 주셨고, 이것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은사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당신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바울의 네 가지 권면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네 가지 권면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임)

니다. 함께 읽으면서 목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목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2:1-8(그리스도 윤리의 대강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매일 매일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을 바쳤던 구약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자기의 몸, 즉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은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이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신앙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무의식을 지배하는 시대적 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변화시켜 내야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속한 공동체라면, 최소한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절실한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게을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전에 국가와 사회에 주도적 영향력을 주었던 사실들을 기억하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각성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함에도 나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지금도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는 가 돌아봅니다!

6. 기도